

# Venture in, 벤처스

→ Enjoy Venture

한글과컴퓨터 게임동호회 HNG

## 일주일에 .. 한번 .. 우리는 .. 달린다 ..



### 'HNG(Hancom Network Game)'

가 만들어진 것이 1998년이니 사람 나이로 치면 벌써 여덟 살이다. 팔 년이면 강산도 적잖이 변화건만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면 회사근처 피씨방에 출근도장을 찍는 이들의 게임사랑은 변할 줄을 모른다. **HNG가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회사가 국민기업 '한글과컴퓨터'이고, 동호회의 유일무이한 희칙이 바로 '자율'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유롭게 모인 36명의 동호회 인원은 사내 동호회 중 단연 으뜸이고, 동호회의 역사도 가장 길다. 즐기 위해 모인 자

리인 만큼 승패를 떠나 게임 내내 이들의 분위기는 밝고 기쁘다. **개발팀, 고객영업팀, 재경팀 등 회사의 전 부서에서 출동한 직원들과, 동지로 혹은 적이 되어 일전을 치르다 보면 지난 일주일의 스트레스는 어느새 말끔히 풀린다는게 이들이 말하는 '집단게임'의 즐거움이다.**

규율도 없고 분위기가 좋다고 이들의 실력까지 알아서는 안된다. 회원 대부분이 배틀넷에서 남모르는 수련을 한 고수들이기 때문이다. 개발팀 김영기씨는 배틀넷전적 2000승이 훨씬 넘는 동호회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하지만 이런 그들도 좌절은 있었다. 프로그래머가 꿈이었던 아르바이트 여직원에게 동아리가 전멸한 적도 있었고, 한컴 게임단 소속이었던 봉준구 선수에게 철저히 유린당한 아픈 기억도 있었다. 누구보다 게임을 사랑하지만, 또 누구보다 매캐한 패배의 기억 하나씩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영업팀 모과장님의 전철을 밟으며 결혼 두 시간 전까지 게임을 하다가 식당에 들어갔다는 동호회 윤차영 회장은 지금도 "아내보다 게임이 더 좋다"고 호기롭게 말한다. 이들과의 잠깐의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어디선가 힘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판만 더!"** HNG사람들, 여덟 살의 순수함이 묻어난다.

인

사관리시스템 전문업체 '화이트정보통신'의 마케팅팀에 근무하는 김경옥 대리는 '보래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것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언뜻보아 그의 미니홈피 역시 그런 평범함에 묻히는 듯 하지만 그 평범속에 '인간 김경옥'이 켜켜이 감춰져있다. 여행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맛과 멋을 찾는 동시대인의 모습을 김경옥씨는 그만의 감수성으로 조곤조곤 들려준다. 지극히 일상적이라 더 재미있는 김경옥씨의 비밀 일기장, Jade Land의 일상다반사속으로 들어가 보자.

추우시죠?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떠올려봐요~~

## 김 경 옥 씨 의 미 니 홈 피 에 는 이 런 일 이

**영화, 연예인, 맛집 여기 다 모여!**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콘서트에 다녀온 날 혹은 코골정한 드라마를 본 날이면 그녀는 그 감정의 흔적을 Drama&Movies에 모아놓는다. 지구촌에서 총망라된 연예인들과 간단한 품평을 만날 수 있다. 맛집과 멋집을 알고 싶다면 Well-Being이나 Trip을 클릭해 보자. 그녀가 팔로 뛰며 찾아낸 최고의 장소들이 링크되어있다.

**'옥이의 짧은 단상', 불특정다수에게 들려주는 그녀의 이야기** 아직 6호 밖에 발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싸이월드의 영연한 페이지 발행인이다. '꽃대선', '살과 죽음'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그녀만의 가벼운 목소리로 풀어놓았다. 일기를 써내려가듯 편하게 쓴 그녀만의 '단상'들이다.(<http://paper.cyworld.com/ogibang>)

**암사골 천와의 행복한 추억만들기** Amesa Angels에는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그녀가 어린이 보호시설인 암사원에서 보낸 추억들이 모아져 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한 김경옥씨가 나누는 이웃사랑과 티없이 밝은 어린이들의 순수를 만날 수 있다. 단,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일촌신청이 필수다.



Venture in,  
벤처스  
→ Funny Venture

화이트정보통신 김경옥 씨의 미니홈피 "옥이 LoveHouse"

.. 평범해서.. 더.. 재밌는.. Jade Land~